

히라야마 이쿠오_고구려 문화유산 등재에 공헌

북한의 고구려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기여한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 전 도쿄예술대 학장이 어떤 사연으로 고구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 중3 때 동원된 육군병기보급창고에서 원자폭탄으로 피폭, 이 때부터 경험의 후일 문화재적십자 활동의 계기가 되었음

* 히로시마 출생(1930.6.15-2009.12.2)

- 1960년대 후반부터 자주 실크로드 유적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그 풍경들을 그림으로 표현, 현대 일본화단의 최고봉에 위치하는 화가이며 그 작품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미술원 이사장, 문화훈장 수장자, 히로시마 명예현민

* 불교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 대다수

- 1988년 유네스코 친선대사에 취임, 이를 계기로 북한을 15년 동안 아홉 차례이상 방문하여 현지의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려왔음

* 고구려와의 인연은 1967년 우연히 사진으로 본 수산리 고분벽화의 여인에 젊은 화가 히라야마의 눈이 꽂힘으로써 시작됨, ‘고대 일본 여왕 히미코도 필시 이런 모습이라’ 라는 영감을 바탕으로 이듬해 ‘히미코 광벽환상’ 이라는 작품을 완성, 4년 뒤에 나라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에서 그가 그린 히미코와

똑같은 모습을 한 미인도가 나옴으로써 ‘일본 문화의 원류는 한반도에 닿는다’는 신념을 갖게 됨

○ 2004년 고구려 고분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이 공로로 같은 해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음

*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일본측 실행위원장을 맡는 등 양국간 친선문화 교류를 주도

* ‘일본은 고대에 한반도에 많은 신세를 졌던 민족이며 문화예술을 통해 타자를 존중하고 돕는 일’ 이것이 히라야마의 평화운동임

○ 주된 작품

* 『仏教伝来』 (1959) (佐久市立近代美術館)

* 『入涅槃幻想』 (1961) (東京国立近代美術館)

* 『受胎靈夢』 (1962) (広島県立美術館)

* 『ガンジスの夕』 (1970) (成川美術館)

* 『画禅院青邨先生還浄図』 (1978) (京都国立近代美術館)

* 『広島生変図』 (1979) (広島県立美術館)

* 『イラン高原を行く』 (1995) (ポーラ美術館)

* 『大唐西域壁画』 (2000) (薬師寺玄奘三蔵院壁画)



<참고 문헌>

“히라야마 이쿠오” (중앙일보 09.12.08),

“고구려 고분 유네스코 등재 기여한 히라야마 이쿠오 별세” (중앙일보 09.12.11)